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대표

○ 모두 농어민이라 불리지만 그 내부는 하나인 적은 없었다.

- 지금까지 대농과 소농, 기업농과 가족농,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과 관행농업을 하는 농민 등, 내부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어 왔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관점의 차이를 떠나 그 구분의 기준은 모두 농업(규모, 구조, 형태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농어촌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 농어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작금의 농어업과 농어촌 상황은 이전과 다르다. 이전에는 농어업과 농어촌은 그 생존을 같이 했다면, 지금은 농어업은 살아도 농어촌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 50여년을 막무가내로 달려온 생산성 중심의 농어업 정책의 결과로 - 물론, 정책 입안자들은 농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는지 모르지만 - 현장에선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한정된 농지(어장)에서 농어업의 규모화, 산업화 정책은 농어민의 극감을 걱정했지만, 그것보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극감으로 농어촌의 존립이 먼저 위기에 봉착할 듯하다. 일정 규모 이상인 농어가의 거주지는 농어촌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전형적인 농어촌인 리와 면을 벗어난- 읍내일 가능성이 높다.
- 이제는 농어촌을 지켜가는 농어업(농어민)과 농어촌마을과 무관한 농어업(농어민)으로 구분해야 하는 시대이다. 농어촌마을과 생존을 함께 하는 농어민과 농어촌마을과 생존이 별개인 농어민으로 구분된다. 농어촌마을과 생존을 함께 하는 농어업이 무엇일까? 이는 개별 농어업 생산 단위가 농어업을 행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단위 내에 완벽하게 구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여러 자원을 공유해야 했으며 그리고 마을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은 항상 연결될 수 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라는 독특한 삶의 형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외국의 그 훌륭한 **공동체와 달리 마을공동체는 단일한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목적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공간 내에 살아가는 사람은 의례히 참가하는 독특한 절차와 문화와 규칙을 가지게 된 것이다.
- 농어촌에서도 자본이 축적되었고, 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단지 농어업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는 더 이상 한국

농어촌사회의 독특한 마을공동체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규모화된 농장은 공간을 공유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들에게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해요인일 뿐이다. 사람만이 아니다 주변의 환경 그리고 마을의 규칙은 생산성 향상의 저해요인일 뿐이다. 마을의 자원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료일 뿐이다.

- 한국 농어업은 그 귀로에 놓여있다. 생산성 향상과 소비 촉진의 한계 때문이 아니다. 농어업정책은 -사업 명칭의 변화와 무관하게- 여전히 하나의 길을 지원하고 유도하고 있다. 또, 농촌의 고령화는 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을과 생존을 함께 하는 농업을 하는 아님, 할 수 밖에 없는 농어민들은 남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농이거나 여성농어민이거나 물려받을 농지는 없이 또한, 투자할 축적된 자본이 없이 최근 진입한 젊은 농어민들이다. 그 중에서 마을공동체의 경험을 숙지하고 있고 체화하고 있어 경험을 전달 할 수 있는 농민은 여성농어민이다. 이들의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전달할 체계는 무엇인가에 한국 농어촌사회 마을공동체의 존립이 달려있다. 시간도 많지 않다.

○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여성이다.

- 보통 농어촌이라 하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농어업과 자연환경(경관)일 것이다. 많은 책에서는 전통문화라 적혀 있을 것이지만 많은 농촌 마을에서는 사라지기도 했지만 현대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청학동을 따라 갈수는 없을 것이다.
- 농어업은 당연하고, 자연환경은 참 애매하다. 현재, 농촌의 자연환경이 도시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다. 축사의 악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나면 나뭇가지에 걸려 펄럭이는 비닐을 보는 것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닐을 포함한 쓰레기를 태우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비가 오고 나면 저수지와 해변 구석에 몰려 떠다니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과 농약통을 보는 것은 일상이다.
- 농어촌마을에는 소위 부역이라 부르는 활동이 여전히 있다. “별척이나 처벌이 아닌 합법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강제노동과 다르다. 부역의 기원은 공동경작, 관개사업과 같이 공동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던 공동체의 사회적 작업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회가 분화되고 사회조직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업은 조세화 하여 국가에 의해 조직, 관리(다음백과)” 되었다. 특히,

공동생산을 위한 부역이 아니라 마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부역이 중요하다.

- 이는 마땅히 “국가에 의해 조직, 관리” 되어야 함에도 인구의 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그리고 관심에서 떨어진 농어촌사회이기 때문에, 이곳의 자연환경(경관 등)을 관리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도맡아 해 온 것이다. 물론, 새로 만들어진 도시와 달리 대대로 이어져 온 농어촌사회의 여러 특징에 의해 “공동의 노동”이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 될 수 있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노동이라는 주민들의 사회적 노동 투여에 의해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은 유지되었다.
- 농어촌사회의 주변 자원을 단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농업의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이를 농어촌 자연환경을 관리함에 공동 노동, 자발적 노동만으로 메우기엔 한계점에 왔다. 예를 들면 예전 농로나 마을 길의 양쪽 유희지는 어르신들이 콩밭, 들깨 밭으로 활용됨으로써 관리되어왔다. 지금은 잡초가 덮고 있어 일 년에 몇 차례 예초 작업이 필요해졌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도시와 같이 농촌 마을의 자연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조직, 관리”하는 방법이다. 환경미화원을 두고 쓰레기차가 매일 새벽 마을 곳곳을 치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기존의 공동노동, 사회적 작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마을의 자연환경이 관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 어찌면 농어촌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왔고 유지시켜 왔기 때문이다.
- 그 사회적 작업의 동력은 농어민만이 아니라 농어촌마을의 주민이다. 중심 동력은 앞에서 말한 농어촌 마을과 생존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농어민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주민일 것이다. 그 중심에 여성이 있고 이를 전달 받아야 하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활동을 단순히 전통 문화라는 말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에 의해 조직, 관리”하지 못한 -당연히 해야 함에도- 공간을 마을의 주민이 대신하는 정당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전환시켜야 한다.
- 이것은 경관과 같은 자연환경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과 국가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농어촌 마을의 교육(마을교육공동체), 복지(마을케어), 교통 등 삶의 영위하는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 이 활동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다. 우리 마을을 보면 그러하다.